

가계대출 연대보증인 필요없다

신한 4월 말, 국민·우리은행 6월 초 완전 폐지

신용 낮으면 대출 불가... 개인 신용관리 비상

앞으로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내세우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개인이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을 선 사람이 빚더미에 앉는 피해가 사라지겠지만 신용이 낮은 사람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6월 말까지 전면 폐지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은행권과 함께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별로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을 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4월 말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6월 초에 다른 은행보다 앞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이후 발생하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국민 주택기금 대출 등 관련법규상 연대보증인 필요한 경우는 이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은행들이 대출 건당 1천만원, 보증인 1인당 총 5천만~1억원 한도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보증 제도가 없어지면 은행들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만 이용해 가계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이 대출 여부와 대출금액을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저신용자들이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금리가 비싼 저속은행 등 대2금융권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저신용자의 대출 대출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규모는 3조2천억원(55만7천건)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0.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은 "연대보증의 폐해를 해결하고 신용평가를 통한 무보증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의 개선 문제는 관련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내 증시 이틀째 조정 놓고 증권맨 대립각

국내 증시를 둘러싼 두 가지 시각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 기업의 실적 우려에서 나온 이번 주 지수 하락은 상승장에서의 일시적인 조정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과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상승은 약세장에서의 반동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 "코스피, 올해 2,000 건다" = 최근 경제장 이론의 대표 주자로 떠오른 우리투자증권의 이윤환 연구위원은 "지수가 일시적인 조정을 겪을 수 있지만 기본 추세는 상승 추세로 복귀했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경제장 복귀로의 가장 큰 요인으로 '금융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지난해 9월 이후 8천억 달러에 이르는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풀려나왔으며 미 정부의 감세 조치도 유동성 증가에 한 몫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 금리 인하의 효과가 4~5개월 뒤에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말과 올 초 집중적으로 이뤄진 미 금리인하의 효과가 2.4분기부터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상승장 속 조정'이라는 주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지수 조정이 일어날 때마다 IT, 자동차주 등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에 나설 것을 조언했다.

"일시 조정" "하락 장세"

◆ "약세장 속 반등 - 현금 확보해야" = 스타급 시황 애널리스트인 한국투자증권의 김학균 연구원은 다소 상반된 의견을 드러냈다. 국제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의 재부상, 불리해진 증시의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한 달 간 지속된 '약세장 속 반등'(베어마켓 펄리)이 막바지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가 국내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최대 약재로 꼽는 것은 급격한 인플레이션 우려이다. 국제 유가가 전 고점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기업 비용과 직결되는 생산자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기업 이익의 증가세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는 "올해 일시적으로 1,800~1,900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지 몰라도 강한 상승 추세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며 "3년 이상 자금을 증시에 묶어둘 수 있는 장기 투자자라면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하겠지만 1년 가량의 투자기간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반등 시 현금 확보에 나서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모하비 타고 금강산 가세요

기아, 20가족 여행 이벤트
모하비 고객들이라면 모하비를 타고 금강산 여행을 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 기아자동차는 모하비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하비를 타고 떠나는 금강산 가족여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한 모하비 고객 중 20가족(1가족 2인)을 선발, 2박3일 일정의 금강산 여행을 제공한다. 오는 20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kr)를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22일 발표한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금강산 여행 행운 잡으세요
기아자동차는 오는 20일까지 모하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금강산 가족여행 이벤트'를 벌인다. <기아차광주중앙점 제공>

출종제 폐지·기업집단 공시 임박예고

공정위, 지주사 부채비율 규제·주식 보유 한도 없애

정부가 출자총액규제를 없애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규제와 주식보유 한도도 폐지하는 등 재벌 규제를 대폭 완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 입법예고 하고 오는 6월까지 내부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자산 2조원 이상 3개 계열기업을 대상으로 타 회사 출자한도를 순자산 40%로 제한하는 출자총액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사에는 전체 그룹의 일반현황과 주식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되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공시한 경우 건당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공시 이행명령, 또는 정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현재 200% 이내여야 하는 부채비율 규제를 없애고 비계열사 주식을 5%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게 된다.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로 전환시 자회사 지분율(상장사 20% 이상, 비상장사 4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예외기간도 현행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갖는 경우만 증손회사의 보유가 허용됐지만 개정법안이 시행될 경우

손자회사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공동출자법인은 증손회사로 가질 수 있다. 기업결합 사전신고제도 없어져 지금까지는 대규모 기업의 기업결합심사는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돼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결합 완료 이전이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수입원자재 가격 지수 7개월째 최고치 경신

3월 코이마지수 전달비 22P ↑

한국수입업협회(KOIMA)가 주요 수입원자재 가격을 종합해 산정하는 '코이마지수'가 7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15일 한국수입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코이마지수는 347.83포인트로 지난 2월의 325.43포인트보다 22.4포인트 상승하며 작년 9월 이후 7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이마 지수는 1995년 12월의 원자재 수입가격을 기준치 100으로 놓고 매월 30개 주요 수입원자재 가격을 산출한 것이다. 부문별로는 철강과 유연탄 가격 급등과 수요 증가로 철강재의 상승률이 18.61%로 가장 높았고 광산품(7.59%), 비철금속(7.8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농산물 지수는 소맥 가격이 다소 약세를 보이면서 1.92% 하락했고 섬유원료 가격지수도 수요 감소로 0.39% 내렸다. 한편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지난 달 수입물가가 급등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델타-노스웨스트 합병 ... 세계 최대 항공사 탄생

미국 3위 항공업체인 델타항공과 5위 업체인 노스웨스트항공이 합병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세계 최대의 항공사가 탄생하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15일 보도했다. 양사는 14일(현지시간) 노스웨스트 주식 1주를 1.25주의 델타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의 합병안을 발표했다. 총 교환 규모는 31억달러 수준이다. 합병사명은 델타항공으로 하고 본사는 델타항공의 본거지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두며 리

한경연, 'MB정책' 첫 문제제기

"주요 생필품 집중관리 대상 너무 많고 시장개입 위험"

'MB정책'으로 불리는 52개 생필품의 가격을 집중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대상품목이 너무 많고 과도한 시장개입의 위험이 상존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15일 내놓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 물가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효과적인 서민생활물가 관리를 위해서는 유류, 교육비, 주거비 위주로 관리대상 품목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저소득 계층의 구입빈도가 높고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52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유통구조 개선, 경쟁 촉진 등 방법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들 품목은 이명박 대통령이 선정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고 해서 'MB정책'이라고 불린다. 한경연은 관리대상 품목이 52개로 발표됐지만 정부의 소비자들이 작성시 적용하는 분류 기준에 따라 경우 72개 품목에 이를 정도로 많고 이 가운데는 실제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도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연합뉴스

대기업 을 大추채용 20~30% 늘린다

SK 600명·금호아시아나 400명 등

2008년 주요 그룹 및 기업 대졸 신규 채용

올해 주요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이 작년에 비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08년 신규인력 채용동태 및 전망조사'에 따르면 삼성과 SK, 금호아시아나, 한화, 두산 등 주요 그룹이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작년에 비해 20~30% 늘려 잡았다. 우선 SK그룹은 작년 670명을 뽑았지만 올해에는 20% 증가한 800명을 뽑을 계획이다. 최근 활발한 인수 합병으로 그룹 규모를 키우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도 작년 300명을 선발했는데 올해에는 33.3% 증가한 40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화그룹도 작년에는 1천100명을 뽑았는데 올해에는 36.4% 증가한 1천5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 두산그룹은 신입사원 채용이 작년 1천100명에서 올해 1천320명으로 20% 증가한다. 이 외에 LG전자(1천명), 롯데그룹(1천300명), 포스코(240명) 등은 작년과 채용 규모가 비슷하며 GS그룹은 상반기 인턴 사원을 80~100명 뽑을 계획은 있지만 정식 공채 인원은 미정이다.

구분	채용시기		채용규모		비고
	상반기	하반기	2007년	2008년	
삼성	4~5월	11~12월	6천850명	미정	그룹
LG	3월	9월	1천명	1천명	LG전자
롯데	5월	9월	1천300명	1천300명	그룹
한화	4~6월	9~12월	1천100명	1천500명(36.4%↑)	그룹
두산	5~6월	9~11월	1천100명	1천320명(20%↑)	그룹
SK	4월	9~11월	670명	800명(20%↑)	그룹
금호아시아나	4~7월	10~12월	300명	400명(33.3%↑)	그룹
포스코	3~5월	9월~	240명	240명	포스코
GS	4월~	10월~	80명	80~100명(상반기 추정) 공채 채용 인원 미정	인턴
현대중공업	3~6월	미정	-	250~300명(상반기)	현대중공업
현대차	미정	미정	800명	미정	현대차

다. 삼성그룹은 당초 경총 조사에서는 올해 작년보다 인원수가 늘어난 7천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된 후 "올해 채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골프저산업 활성화 협약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왼쪽)과 조선이공대학(학장 김형근)은 15일 이공대 회의실에서 골프저산업 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협약식을 가졌다. <광주·전남중기청 제공>

함께 일합니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휴로넷	[고정급150만원]SK텔레콤(광주역/우산동)114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4/17	011-299-7000
남해종합개발	[건축/기계/전기/조경/관리팀] 신입 및 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8	062-220-2514
㈜윌디디자인	인터넷 쇼핑몰 상품 포장 및 배송지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8	010-8383-0510
제이앤비컨설팅	신한카드 인바운드/미납상담/해피콜 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4/18	062-224-5863
우창정밀공업	경력직 사무관리,총무,경리직원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4/19	062-571-6220
한화정보기술(주)	HP-UX 엔지니어 및 영업사원	초대졸/경력3년	3400~3600	04/19	062-251-8668
㈜태창공업	기계분야 생산관리 경력자	회사내규	04/19	062-956-2413	
오페리텔링스피츠포츠센터	인내테크스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0	062-956-9405
㈜아이엔비코퍼레이션	정규직 회계팀 경력사원	고졸/경력2년	2400~2600	04/21	062-222-6675
아카섬	건축, 인테리어 CG디자이너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1	062-523-4749
㈜천원 금형	머신인 센터 작업자& 금형 3D설계 가능한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1	062-946-1229
㈜산림씨링	기업체 납품영업사원(대우광주공장 납품영업)	초대졸/경력4년	2400~2600	04/22	018-619-2793
㈜사운드	웹 디자이너 영상 편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2	062-223-1234
전자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 위촉연구원 신규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5	062-975-7042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